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3월 17일(월) 제 3055호



첨단소재기업 투자 협약식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첨단소재기업 투자협약식에 김관영도지사가 군산시, 익산시와 함께 동우화인켄(주), ㈜삼양사, ㈜나노솔루션과 84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도>

첨단소재기업 투자 이어져...도약 발판

동우화인켄·삼양사·나노솔루션과 협력... 847억 규모 투자 유치
 반도체·정밀화학·이차전지 소재 산업 집중 육성 가속화
 연구개발·생산시설 고도화 추진... 전북 미래산업 거점으로 성장

반도체, 이차전지, 나노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군산시, 익산시와 함께 동우화인켄(주), ㈜삼양사, ㈜나노솔루션과 84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관영 도지사, 김영민 군산부시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김두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카츠다 노부유키 동우화인켄 부사장, 조영도 삼양사 상무, 김형열 나노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 본사를 둔 동우화인켄은 도내 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추가적인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

이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전북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삼양사는 국내 유일의 초순수 이온교환수지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군산공장을 신설해 반도체 및 정밀화학 산업의 필수 소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온교환수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양사는 이를 통해 국내 이온교환수지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전북이 첨단소재 공급망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노솔루션은 이차전지 전극 소재로 활용되는 탄소나노튜브 및 기능성 나노물질의 분산액과 응용제품을 개발·양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북대, KIST 전북분원,

전주대 등 지역 내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균형 잡힌 투자유치를 실현하며,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장은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생산시설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김두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이번 투자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삼양그룹의 전체 투자 규모가 총 3천550억원에 달하며, 기 입주한 삼양이노켄(화학), 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온수지)와의 협력이 강화돼 국내 화학 및 이온교환수지 산업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

지방재정 어려움 호소, 민생경제 해결 위한 필요성 강조
 전북도 제안, 지역 실정에 맞는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

이런 공동 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 기자

전북 개최 스포츠 행사 '조기 마감'...올림픽 후광 효과?

군산새만금마라톤 조기 마감...장수트레일레이스도 '완판'
 호텔예약 등 관광 효과로 연결, 2036 올림픽 유치 기대감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이후 전북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행사들이 '조기 마감'을 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서울을 제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올림픽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이 마라톤 등 올림픽 종목 대회를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역량을 증명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3대 마라톤 행사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가 접수 일정을 남겨두고 출전권이 모두 매진됐다.
 전북자치도육상연맹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열리는 제19회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는 지난 8일 모든 코스의 접수가 마감됐다.
 마감 기한인 17일보다 열흘 정도 빠르게 참가자를 모두 채운 것이다. 대회 참가 인원도 1만2천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주최 측은 이 인원이 대회 당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라고 보고 참가 접수를

넘어나 코스, 준비 상황은 메이저 대회급이다.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는 참가자들의 숙박비 할인도 지원하면서 이번 대회 흥행이 전북 관광으로 즉각 이어지도록 했다. 대회장 인근 호텔 할인은 20%로 대구마라톤 당시 주변 호텔 숙박비가 3배 이상 났던 것과 다르게 참석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비슷한 기간에 열리는 장수트레일레이스는 더 빠른 시간에 참석자를 모두 채웠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국내 대표 트레일레이스 대회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회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총 2500여 명으로 이 기간 중 장수군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전북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을 경우 올림픽 유치에도 적지 않은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 분석이다.
 /전북일보 제공

한국관광 100선 선정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2025~2026 선정

개암사

식소폭포

수성당

슬섬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정 혁신 추진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7개 분과·127명 위촉... 농정 현안 해결 박차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정 혁신 추진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어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운영 방향 보고,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핵심 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서 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친환경경작, 수산활력, 농업기술 분야별 7개 분과와 전

체위원회로 구성돼 1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1기 위원회는 분과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총 49건의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 중 ‘도중농작물 보존·육성사업’ 등 23건이 정책이 반영됐다. 또한 필수 농자재 지원기준 마련,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방안 등 핵심 농정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현장 회의를 확대하고 분과간 협업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 정책 논의 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오는 24일~4월 4일까지 접수...15개사 선발·3억2천원 지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 오후 6시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진행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 초기, 성장, 지역상생형 기업 등 4가지 분야다.

▲예비 창업자는 도내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자이고 ▲초기 기업은 도내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성장 기업은 창업 3년 이상의 기업 ▲지역상생형 기업은 타지역에서 1년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

는 기업 중 전북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 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관광 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 디테크 ▲지역 특화 콘텐츠 ▲문화-예술 융합 총 6개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하며, 15개사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안중현 센터장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광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겠다”며 “혁신적인 관광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해민 기자

‘2025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참여 단체 모집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 정착 유도...5개 마을 선정·개소당 1억원 지원

전북자치도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류·협력 활동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청년마을을 선정해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이며 구성원의 40% 이상이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단체

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사업의 실효성, 지속성,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주민과의 유대 및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정해민 기자

윤준병 의원, 생활인구 확대 등 특례 적용 개정안 국회 통과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통과하면서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소멸·지방소멸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날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국가적 해결 과제인 농어촌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에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

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6백명 청년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51억 투입

전북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51억 원이 투입되며, 직접일자리(1유형) 587명, 창업지원(2유형) 13명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1유형)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 원씩 최대 2

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지원(2유형)에서는 1~2년차에 최대 3,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 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파면 촉구 천막농성 돌입

전북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영권 대표의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첫날 농성에는 최형열 의원과 정중복 의원이 나섰다.

장 대표의원은 “내란수괴 석방으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정의이고 유일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순창군 공고 제2025-2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순창군수

-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도로 명칭 | 사업예정지 (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지역 명칭(명명) 및 주소 |
|------------------------------|--------|--|----------------------------------|--------------------------|
| 도로사업 (원계 심조(군도2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군도 21호 | 순창군 원계면 심조리 403-2 ~ 원계면 합리 산118-6번지 일원 |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L=1.16km, B=8.0m) | 순창군수(건설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주민편익 제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도로구역 편입토지 총괄표

| 구분 | 합계 | | 사유지 | | 국공유지 | | 비고 |
|----|-----|---------------------|------|---------------------|------|---------------------|----|
| | 필지 | 면적(m ²) | 필지 | 면적(m ²) | 필지 | 면적(m ²) | |
| 합계 | 132 | 43,249 | 100 | 23,033 | 80 | 20,216 | |
| 도로 | 90 | 18,085 | 41.8 | 2,956 | 69 | 15,129 | |
| 구거 | 6 | 3,878 | 9 | - | 6 | 3,878 | |
| 천 | 7 | 2,521 | 5.8 | 6 | 1 | 120 | |
| 담 | 13 | 6,236 | 14.4 | 13 | - | - | |
| 임야 | 15 | 12,504 | 28.9 | 12 | 3 | 1,064 | |
| 제방 | 1 | 25 | 0.1 | - | 1 | 25 | |
- 도로구역 편입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 연락장소 및 연락기간

| 연락장소 | 연락기간 |
|--------------|-----------------------------|
| 순창군 건설과, 원계면 | 2025. 3. 17. ~ 2025. 3. 31. |
-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3. 17. ~ 2025. 3. 31.
 - 제출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및 연락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전주·완주 문화벨트 구축 '앞장'

전주시립예술단,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상생협력 공연 추진...올해도 예술단별 찾아가는 공연 이어가

전주시립예술단이 완주군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전주·완주를 하나의 문화벨트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문화벨트 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시립예술단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협력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전주시립국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은 지난해 각각의 특성을 담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친숙한 곡(작품)을 선정해 총 10회의 공연을 펼쳤다. 그 결과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등 20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먼저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은 지난해 3월 15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승인된 전주와 공동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완주가 하나의 문화벨트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단합을 촉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상호 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 연주회를 선보였다.

이 공연에는 완주군 홍보대사인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임세경(중앙대학교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전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출연했으며, 전주소년소녀합창단과 완주소년

소녀합창단이 연합합창단을 결성해 전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문화 예술적 교류를 통해 완주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연 '완(주)전(주)한 나누美' 공연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7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이 공연에서 국악단은 ▲국악관현악 '축제' ▲민요의 향연 ▲국악가요 '가시버서 사랑'과 '열두달이 다 좋아' ▲소금·대금 협주곡 'Morning' 등을 연주했다. 또, 완주군여성합창단과 ▲바람의 노래 ▲최진사택 셋째딸 ▲완주아리랑을 협연해 공연을 관람한 300여 명의 완주군민의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전주시립극단은 전주·완주 도서관 순회공연으로 기획한 '책 읽어드는 남녀' 공연을 ▲완주군립중앙도서관(2회) ▲철쭉작은도서관 ▲기차길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콩쥐팍쥐도서관 등 완주군 도서관으로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끝으로 전주시립합창단은 완주군민과 함께 탁월한 통합,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완(주)전(주)한 하모니III'를 공연했다.

지난해 9월 3일 완주문화예술회관



전주시립예술단이 완주군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전주·완주를 하나의 문화벨트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에서 펼쳐진 이 공연에서는 ▲홍성합창: Tres Cantos, Nyon nyon, Why We sing, 손백처 ▲남성4중창: 일문도, 장미의 미소, 품문으로 들었소 ▲독창: 오나의 사랑하는 이어(조수빈), 내가 슬레가 되면(최완규), 꽃밭에서(김영지) ▲해금 독주: 그 저녀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해금 오정무) 등이 올려퍼졌다.

완주군여성합창단도 ▲협한 세상 다리가 돼 ▲완주 아리랑을 공연하며 하모니를 이뤘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예술단은 올해도 완주군과 협의해 전주와 완주의 문화벨트 형성을 위한 완주·전주 상생협력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완주군과 문화예술 교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와 완주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 비만 예방 위한 캠페인 전개 전주시보건소, 비만예방의 날 맞아 비만인식개선 이벤트 등 펼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고사동 중앙살림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비만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상에서 가볍게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영양 및 신체활동 상담 ▲건강 식단 전시 등 다양한 체험관이 운영됐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슬로건 퀴즈 이벤트도 펼쳐졌다.

보건소는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15일간 12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

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온 내 전주시 커뮤니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민의 걷기 실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챌린지 기간을 늘리고, 추첨대상자도 500명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5월에도 전북대학교 구정문 버스킹존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비만 예방은 일상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서부터 시작되므로 일상 속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지역 공공 유희부지, 정원 분야 청년 실습공간으로

전주시, 산림청 공모 '2025년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5개소 선정

전주 도심 곳곳에 위치한 공공 유희부지가 정원 분야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실습 공간이 될 다섯 개의 정원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올해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정원 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주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곡경관녹지 2

곳 ▲평화경관녹지 2곳 ▲월드크림광장 남부 1곳 등 전주지역 공공시설 내 유희부지 5곳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총 3억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부지당 7560만 원씩 투입해 총 5곳의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원 조성에는 선발된 청년 팀들이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정원 디자이너와 협

업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정원 분야 전공자 등 사회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원작가와 시민(초목) 정원사 등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선 전주시 자연순환복지국장은 "전

주시는 실습·보육 공간 조성사업 외에도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와 지방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습·보육 공간 조성사업으로 정원 분야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 구제역 위기 '주의' 단계 격상...긴급 방역 조치 시행

전북자치도가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군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도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긴급 백신접종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달로 예정됐던 소·염소 53만6천여 마리 대상 백신접종을 14일부터 31일까지 앞당겨 진행한

다.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 46개 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도로변과 농장 주변을 집중소독하고, 공수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부서를 통한 임상·전해 예방을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는 행사·모임을 자제하고,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공모 선정...맞춤형 평생학습 제공

한국농수산대·전주대·우석대·전주교육대와 협력, 지역산업·문화·디지털 기술 등 교육 과정 개설

전주시가 지역대학들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2025년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주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을 재구조화해 도민들에게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학습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지역 내 학습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지역대학

이 협력해 캠퍼스를 운영하게 되며, 전주 캠퍼스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가 참여해 ▲지역 산업 ▲문화 ▲디지털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 및 건설 기계 실무 과정으로 '소형굴착기 면허 취득'과 '농기계 운전 실습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실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통 장류 제조 실습'과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의 전통

산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해 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AI 활용 및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과정도 운영된다.

시는 전주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시민들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을 배우고 실생활과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대학교와 함께 한국어 발음 멘토 양성과정을 운영,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주시민들이 한국어 교육 멘토로

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우석대학교와 함께 하는 전주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의 유산을 알리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축에 기여할 시민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총 4억3200만원 투입

전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을 수리해 저소득가구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복권기금과 시비 등 총 4억3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7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 가구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벽체·지붕

단열 시공 ▲방범 시설 설치 ▲부익·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공간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85억5100만 원을 투입해 600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 (063-281-208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대상가정에 해충방역 서비스 지원

전주시가 올해도 아동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80곳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충방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로 자체 방역이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구로, 시는 방역 전문업체인 (유)페넥스를 통해 해충방역과 살균소독 등 각 가정 환경별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의 알레르기성 및 전염성 질병 예방과 주거환경 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 방역이 이뤄지게 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에 두팔 걷어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기업당 자금 최대 1억 지원...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홍보·마케팅, 시설·장비구축 등 경쟁력 강화 최대 5천만원

전북자치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지원사업'과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인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기 경영자금용자 최대 2천만원 ▲장기 경영자금용자 5천만원 ▲시설자금 최대 1억원 ▲대출 등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7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서류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4월 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용자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

적경제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5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

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홍보·마케팅 ▲시설·장비 구축 ▲제품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지정(2회차) 이상 마을기업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6일까지 시·군 사업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농어촌공,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관내 총 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 중 안전 취약시설 25개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오늘부터 오는 28일 진행중인 관내 136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시설물 붕괴, 전도와 같은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를 예방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건설현장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주막, 깎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인 본부장은 "해빙기에 위험 요인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시설 사용 제한 등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도쿄 식품박람회서 전북 농수산물 경쟁력 입증

도내 4개 기업 참가...박람회 현장에서 100만불 수출 상담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와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식품기업들의 일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Big Sight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FOODEX JAPAN 2025'에 참가했다.

FOODEX JAPAN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약 8만 명 이상의 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번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식품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 식품기업들의 일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도쿄 'FOODEX JAPAN 2025'에 참가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 참가에 앞서 일본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참가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수출 경험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마

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한편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근 일본 내 변화 가치 변동과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으며, 특히 외식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가정 내 식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HMR(가정간편

식) 제품과 수산가공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본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유산균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 참가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HMR 부문에서 한국식 레디미틀 제품을

대한 일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다수의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군산의 수산가공품 및 절임식품 제조업체 Y기업은 일본 바이어 K사와 수산물간장제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김치와 간편식을 생산하는 N기업은 말레이시아 바이어 A사와 김치 및 콤부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S기업은 일본 식자재 유통업체와 협업체 공방 방문 및 샘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확보한 수출 상담 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이어 초청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식품을 일본 현지에서 선보이는 판촉행사를 개최해 일본 시장 내 신규 진입 확대 및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농축협 상임이사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지난 14일 전북 농축협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축협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모두가 농협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농협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협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민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실익증진 등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 및 '벼 재배면적

전북자치도 제조업 생산·수출·고용 하락...경기 회복 '먹구름'

한은 전북 발표, 1월 제조업 생산 지난해보다 12.9% ↓...취업자 수 1만2천 명 감소, 실업률 4.7%

전북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 감소와 수출 부진 등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최근)는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했다. 이는 화학제품(-15.3%), 자동차(-14.5%), 식료품(-8.1%)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2.0% 증가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49.4%로 전월(139.6%)보다 9.8%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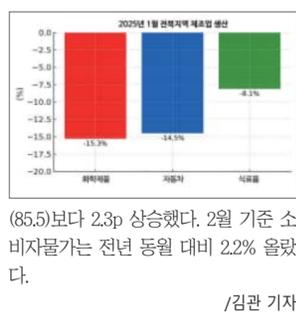
수출은 4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7% 줄었다. 농약 및 의약품(+25.1%)은 증가했으나, 건설광산기계(-92.7%), 합성수지(-27.6%), 자동차(-6.4%)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수입은 3억8천만 달러로 17.2% 축소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1월 취업자 수

는 9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천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0.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월(3.4%)보다 1.3%p 상승했다.

경제심리지표에서는 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0.1로 전월(85.5) 대비 4.6p 상승했으나,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73.7로 전월(77.4)보다 3.7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7.8로 전월



민관 손잡고 안정적인 누에 생산·관리 나선다...합동 특별 전담팀 확대

농촌진흥청, 누에 안정생산 관리 민관 현장 지원 협의회 열어...잠업기관, 민간단체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14일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잠사유동연구회(총무 최주)에서 각 도 관계 기관, 민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누에 안정생산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누에사육 중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 이는 원누에(원종) 생산량 저하를 불러와 누에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 누에 생산 기술교육, 누에병 예방관리, 누에 생산기술 지원 등 안정적인 누에 생산에 보탬에 힘썼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운영했던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을 확대해 민관



농촌진흥청은 14일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잠사유동연구회에서 '누에 안정생산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장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월별 활동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는 전국 누에서 보호·생

산 기관 또는 업체를 방문해 누에 생산, 사육 환경, 수급 상황, 질병 관리 등 누에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점검(모

니터링)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기후로 누에 생산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누에 생산 상황을 실시간 공유, 누에 생산이 부족하면 추가생산이나 지역별로 남는 누에를 분배하는 등 누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누에병 예방 소득제 효과 검증시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누에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 ▲기후변화 대응 인공사육 개발 ▲누에 우수 품종 육성 ▲홍작(5령7일누에)의 건강기능성 연구 진행 상황과 예상 성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누에 안정생산과 우량 누에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 누에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농협전주시지부, 전주시청서 백설기데이 홍보 캠페인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백설기데이'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하양진 지부장은 "시민들이 3월14일은 '백설기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당 대신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로 사랑을 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더불어, 농민들의 정성이 깃든 우리 쌀 소비와 든든한 하루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고교생 국제화 역량 기른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자 모집... 캠프 연수비 전액 지원·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등 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고등학생이 국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글로벌 브릿지 캠프’와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교육청과의 교류교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오는 7월 26일부터 2주간 타코마시 링컨고등학교(Lincoln High School)에서 영어 집중교육과 교류 활동으로 진행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 워싱턴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제공한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페어리디킨슨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FDU)



2024년 글로벌 브릿지 캠프 타코마시 링컨고등학교

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세계시민 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참가자들은 국제연합

(UN) 방문, 명문대 탐방, 글로벌 이슈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올해도 이들 글로벌 캠프에 연수비 전액을 지원한다.

캠프 참가자는 도내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며, 학교 추천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필기·면접 등)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국제교류 해외연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 및 조건은 각 학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캠프는 전북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최혁재

서울대 작곡과 출신·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대 지휘자로 최혁재 지휘자를 선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 지휘자는 서울대 작곡과에서 지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국내 다수의 교향악단을 지휘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최 지휘자는 이달 17일자로 임용된다.

최 지휘자와 함께 선발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맞춤 훈련을 받은 뒤 5월 중 임용 예정이다.

최 지휘자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무대에서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청중과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으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 등 대학 재정난 해결 역점 추진·RISE 안착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등록금 자율조정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대교협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서울 나인트리프리미어 로카우트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고 양 회장의 본격적인 임기를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 부회장(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 등 신입 회장단과 박상규 전임 회장(중앙대 총장), 김현영 전 강원대 총

장(대교협 제26대 회장), 교육부 오석환 차관,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대교협 제15대 회장) 등이 참석해 신입 양오봉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양 회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일몰 기한 연장 ▲2025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안착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대학 등록금 자율 조정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

학이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 대학 총장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국립·사립, 수도권·지역, 대형·소형 대학 간 상생의 틀을 마련해 대교협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희망학교 지원 총력

구독료·컨설팅 제공·수업혁신 플랫폼 개설 등 통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독료 지원, 수업혁신 플랫폼 개설, 컨설팅 제공 등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학기 AIDT 활용 학교로, 전체 학교의 36.1%인 240개교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AIDT 구독료를 전액 지원한다.

AID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북 디지털 수업혁신 플랫폼’도 개설했다.

이 플랫폼에는 AIDT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을 비롯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해야 하는 필수 안내장,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 AIDT 관련 자료가 탑재돼 있다.

/최성민 기자

AIDT 도입 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AIDT 적용교원 강사로 활동했던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컨설팅 지원단이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북대 이한열 교수 연구팀, 웨어러블 헬스케어 개발 ‘화제’

플래시광 이용 3D 다공성 그래핀 헬스케어 센서 개발...세계적 학술지 게재·의료까지 활용 기대



전북대학교 이한열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사진) 연구팀이 3차원(3D) 다공성 그래핀을 활용한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미국 코넬대학교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Impact Factor: 13.0, 학문분야 상위 7.9%)에 게재됐다.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기기는

심박수, 체온, 운동량 등을 측정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존의 센서는 정밀도가 낮거나, 피부와의 밀착력이 부족해 신호 감지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래핀’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그래핀 제조 방식은 비용이 높고, 생산 과정이 복잡하며, 원하는 성능을 얻기가 어려워 상용화가 쉽지 않았다.

이한열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 플래시광 조사를 이용한 그래핀 합성법을 개발했다. 플래시광을 조정하는 방법을 최적화해 고순도·고전도성을 갖춘 3D 다공성 그래핀을 단시간 내에 합성할 수 있게 됐다.

/최성민 기자

이 기술로 만들어진 그래핀은 기존보다 표면적이 넓고, 생체 신호 감지 능력이 우수해 웨어러블 센서로 활용할 때 우수한 감지 성능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피부에 부착해 실시간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피부에 부착해 신체 움직임, 체온, 땀 속 이온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의료기구나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전자소자와도 집적되어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스포츠, 재활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대학교, 제12회 미래전북포럼 성황리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기술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제12회 미래전북

포럼(Future Jeonbuk Forum)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그 무한한 꿈을 향하여’

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K-헬스미래추진단 선정 단장과 국립보건연구원 센터장을 역임한 과학

한 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고객이 예약한 예·적금
고객이 가입한 공제금

새마을금고는 법률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플레이볼” 퓨처스리그 ‘KT 위즈 익산 홈 개막’

익산야구장에서 2025 퓨처스리그 ‘KT 위즈 홈 개막전’이 열리며 본격적인 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익산시와 케이티(KT) 위즈 야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익산 홈 개막전에서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전 행사로 경기 시작에 앞서 낮 12시부터 선수단 팬 사인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기 입장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약 5만 원 상당의 kt wiz 빅토리 캠프세트를 지급하며, 추가로 200명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는 KT 위즈 치어리더팀의 흥겨운 응원전으로 경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군다. 또한 이날 이벤트와 경품 추첨이 예정돼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지난 14일 군산문초등학교에서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노노!! 친구사랑 고고!!” 문구가 적혀있는 홍보물품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정은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난임 부부 위한 한방 치료 지원... 최대 180만원 지원

정읍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개월간 한약·침구·뜸 치료가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통 한의학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도 한의사회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팀(539-6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공법 국토위 통과·광역전철망 청신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국회 국토위원회 통과...익산 중심 전북광역전철망 구축 탄력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공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계를 통과해 기대를 모은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범위 기준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가 신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왔다.

이번 법 개정이 최종 통과되면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주를 통한 익산 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전

철망이 구축될 경우,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분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법 개정이 현실화한다면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주)삼양사, 이온교환수지 투자협약 체결

300억 규모 투자...국내의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 지역으로 자리하는데 중추적 역할 기대

군산시가 ㈜삼양사와 300억 규모의 이온교환수지 분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4일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부시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김두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조영도 삼양사 상무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유일의 초순수 이온교환수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삼양사의 군산공장 건설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온교환수지 산업이 더욱 확대되어 반도체 및 정밀화학 산업의 필수 소재 공급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을 통해 군산이 국내외의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온교환수지는 물속의 이온을 비롯한 미세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알칼리 형태의 합성수지이며, 반도체·석유화학·식품·의약품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정밀화학 공정 등에 필요한 초순수 생산에 쓰인다.

㈜삼양사는 1976년 대한민국 최초로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하여 정밀소재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2011년부터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를 개발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첨단소재 기업 투자유치 ‘탄력’...총 547억 투자

동우화인켐(주)·(주)나노솔루션과 투자 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가 첨단소재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동우화인켐(주), (주)나노솔루션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 카즈다 노부유키 동우화인켐(주) 부사장, 김형열 (주)나노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동우화인켐(주)은 370억 원을 투자해 200평 규모의 반도체 소재 연구동을 신축하고, 2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연구동은 최신 시설과 반도체 공정 장비를 갖춘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익산국가산업단지 신항 공장 내에 조성된다.

(주)나노솔루션은 익산제3산단 7,370여 평 부지에 177억 원을 투자한다. 이



를 통해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친환경 절삭수 대량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7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투자기업이 세계적인 첨단 소재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우화인켐(주)은 익산을 대표하는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기능성 케미컬, 터치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나노솔루션은 탄소나노튜브와 기능성 나노물질을 활용한 응용제품을 개발·양산하는 기업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위한 ‘샘초롱 클럽하우스’ 개소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지속적인 사례관리·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원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샘초롱 클럽하우스’를 개소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기 위한 공간인 ‘샘초롱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지난 13일 개소식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 손희경 보건소장, 인산의료재단 김성의 이사장, 유관기관 관계자·등록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클럽하우스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샘초롱 클럽하우스’는 시가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구축된 시설로 정읍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조리실 등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클럽하우스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취업 훈련 및 지원 ▲자립 체험 주택 운영 ▲동료지원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샘초롱 클럽하우스’의 지원사업은 정



읍시에 거주하는 성인 정신질환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용·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063-535-2103)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자 모집

연극·뮤지컬·전시·콘서트 관람 포인트 15만원 지원...선착순 신청

정읍시가 2006년생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연극, 뮤지컬, 전시, 콘서트 관람을 위한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착순 지급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19세 청년 중 36.2%인 30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협

력 예매처인 인터파크 또는 YES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협력 예매처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6월 말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므로 신청 후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위해 총력전

청렴행정구현합동회의 개최...기관장이주관하는 청렴정책추진체계구축

군산시가 ‘청렴 행정 구현 관련 합동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해 ▲2024년 청렴도 평가 공유 ▲2025년 청렴 정책의 방향 설정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직접 주관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청렴의 개념이 부패 방지를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 운영, 외부적으로는 투명성과 적극 행정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책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식사회 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미 올해 초부터 시는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난 2월 말 ‘찾아가는 청렴 공유의 날’을 열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에는 ‘청렴 홍보 슷폼(short-form) 콘텐츠’를 SNS에 선보였다.

활발한 홍보와 함께 군산시는 청렴 정책 추진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장, 부시장, 국소장, 주무국과 과장 및 청렴도 관련 부서장 모두 체계 구축에 포함시켜 정책 공유와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후속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행복장터, 농촌주민맞춤형 이동장터

정읍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 잡았다.

‘찾아가는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정읍시와 샘골농업협동조합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3.5톤 규모의 이동 판매 차량이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평면, 정우면, 복면 지역에

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하루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 판매 차량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120여 개 품목이 구비돼 있으며 모든 상품은 샘골농협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용자 대부분은 자가용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으로 콩나물, 김 등 반찬거리부터 과자 같은 기호식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숙련 외국인 유치 나선다...비자 전환자 모집

익산시가 우수 외국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익산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로 추천자 명단이 전달된다. 이후 신청인이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인 전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서 3년 간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한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국회서 개최

고창군부안군목포시함평군등 전남북 지자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 모색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김원이, 이개호, 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포럼은 서해안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철도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철도의 국가적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역구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철도 건설의 타당성과 가치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해안철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사·한국수자원공사, 노후 수도관 정비 및 관망정비...2025년 말까지 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상호협력해 시내 지역(요촌동, 김산동, 교월동, 신흥동 일원)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내 지역(요촌동, 김산동, 교월동, 신흥동 일원)의 오래되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 새 물을 줄이고 깨끗한 수도물도 공급할 수 있는 관망정비 공사를 지난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17억 원을 확보해 블록 구축, 노후관 교체, 누수복구,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을 2025년 말까지 개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새 물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김제 시내지역 37.9km중 28.8km를 완료했으며 잔여구간 9.1km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잔여 사업구간에는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중앙시장(시정로터리~서독안경원)이 포함돼 있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상가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시장 상인회 및 상가들에게 일일이 공사의 목적과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홍보했으며, 이용객 및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시장 노후관 교체사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오일장을 제외한 약 한달정도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도움과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중앙시장 노후관교체로 인해 그동안 묵어있던 난제사업을 할 수 있게돼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자원공사 김제현대화사업팀은 “김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새 물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세대 교류 문화예술축제...제3회 한국동시축제 열려

‘부안, 꿈꾸는 놀이터’ 주제...경연대회·체험·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

부안군문화재단은 제3회 한국동시축제(이하 동시축제)를 오는 5월 17일 부안 석정문화관 및 청구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동시축제는 어린이와 어른, 일반인과 문학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대회, 체험, 공연, 전시 등 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부안, 꿈꾸는 놀이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시 백일장,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시인 학교 경연대회, 동심놀이(미술·레크

리에이션), 달리는 책버스, 동시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극장, 도서관 체험부스, 우리가족 프리마켓, 특별공연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안교육지원청, 부안 소재 초등학교, 부안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행정기관과 지역단체, 문학인·문학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해 기획 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동시축제는 동시를 매개로 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며 창의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돌봄이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축제가 지역 주민과 부안을 찾아온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



이 되고 우리 부안의 문화예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됐다.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은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노무 제공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던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확대된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이동쉽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엔 조성할 플랫폼 종사자 이동쉽터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는 지난 2024년에 이어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 보장을 도모해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청 유도부박은이 선수, 국가대표 선발 유도선수단,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서 메달 4개 획득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올해 첫 전국대회인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메달 4개를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 신호탄을 터뜨렸다.

개인전 - 48kg급 박은이 선수는 지난 1차 선발전에서 이어 이번 2차 선발전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며 2025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기쁨을 토했다.

박은이 선수의 선전에 힘입어 -57kg급 김현아 선수, -78kg급 이정윤 선수도 연달아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또한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부산북구청을 상대로 김아현 선수의 절반 승, 이정윤 선수의 한판승, 이재란선수의 지도 승 3:2 박은의 승부를 벌이며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고창군청 여자자유도부 이지연 경기지도자는 “힘든 훈련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도 끝까지 지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주는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메달 4개를 시작으로 올해 더 멋진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9명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3월 14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정호 의원(대표의원)과 오세환 의원, 그리고 정만수, 김완철, 신학준, 김재관, 백재욱, 김형연, 정명숙 재무·회계 분야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

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민규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 건전하고도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청년친화도시 도약 다짐

고창군이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2층 상강실에서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가 열렸다. 위촉식에서는 지역청년 7명을 포함한 위촉직 9명이 위촉됐고,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는 15명(당연직 등)으로 2년간 운영된다.

2부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청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군은 2023년부터 시행한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5년에 4대 중점과제(참여, 일자리, 주거, 복지)를 기반으로 자체사업 25개를 포함한 총 54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복지 및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청년정책위원회가 군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2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부안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5명, 생활지원사 78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내 장비 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에 취약한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 가정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내 장비 설치 가구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고 부안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대내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들의 돌봄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세무업무 담당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개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김제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다가를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 기초 역량 강화와 납기 기한 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목별 전산 실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시청 세정과 각 팀장의 맞춤형 교육과 자동차세,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체납액 징수와 민원 응대 방안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추진 후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번 직무 교육을 통해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 전개

부안군보건소는 오는 21일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군민들에게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주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치료가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병원·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주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암 예방의 경각심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2025년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농번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3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6개소 보육시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동안 주말에 아이를 보육하는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2024년에 2개소에서 2025년에는 4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1개소,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 가정에서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장난감 등 대여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연과 함께 농촌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순창군,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개최

이달 16일부터 8일간...선수단 1,300여명 참가 열전 돌입
13년 연속 '소프트테니스 메카 순창'...방문객 증가로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로 자리 잡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46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대장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다목적구장과 제1고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한다. 순창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매년 15개에 달하는 전국 규모의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회 기간 동안 단기 생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3년 연속 순창에서 개최되

는 이번 회장이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에는 선수단과 관계자를 포함해 약 1,3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음식점, 지역 상점 등에서 방문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은 대회 개최를 위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준비를 마쳤으며,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의료진과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키는 한편, 경기장 내외의 위생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 완주 방문... '친환경 산업 모색'

삼례문화예술촌 폐자원 공예품 전시 관람, 완충저류시설 예정지 찾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완주군을 방문해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과 수질사고 안전관리 강화와 친환경 산업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삼례문화예술촌을 방문한 김 장관은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탄생시킨 폐자원 공예품 전시를 관람해, 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자원 순환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살폈다.

이후에는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현황 및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완충저류시설은 각종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단지의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가하천인 만경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복지 및 건강권 확보를 도모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환경부와 완주군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으로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완주군을 방문해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과 수질사고 안전관리 강화와 친환경 산업 발전 현황을 점검했다.

류시설 설치사업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폐자원 공예품 전시는 문화·예술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한 훌륭한 사례"라며 "완주군의 수소경제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은 "완주군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멋진 지역이다"며 "아름다운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국외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노인복지회관 신축 착공 '첫삽'...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원시는 지난 13일 노인 여가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현)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부지(동충동 374-4번지 일원)에서 건축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는 이용 어르신에게 취미활동, 노인대학,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남원시 어르신 복지서비스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노후화된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호소와 매년 증가하는 이용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지회사무실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을 남원시에 요청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총52.5억이며 특별교부세는 10억, 지방비 42.5억



을 투입해 연면적 958㎡, 지상 2층으로 올해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신축되는 남원시노인복지회관은 식당, 주방, 방습실, 대강당,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2개소 등의 복지공간과 사무

실, 소회의실 등의 사무공간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시, 일방적 통합 추진 철회" 촉구

유희태 완주군수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상생발전 비전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유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우 시장이 발표한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과 관련한 상생발전 비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전 발표에 반대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비전 발표로 완주군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시장의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은 부지, 예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도 부재하고 법적인 근거, 주민의견 수렴, 전주시의회 동의 조차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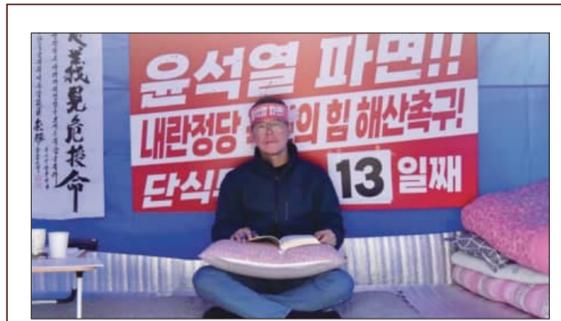
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완주군 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유 군수의 설명이다.

또한, 찬성단체에서 우수사례로 거론하는 통합 청주시 역시 청원군 신청사 건립을 약속했지만 통합 후 11년 동안 내부 갈등을 겪으며 진척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청주시에 건립이 결정됐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 도농통합 당시에도 통합 시청사를 함열(북부권)에 이전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유 군수는 올림픽 유치에 완주군 통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행정 통합을 수단화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도 맞지 않고 도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갈등만 일으켜 개최지

선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군수는 "올림픽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약적인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통합이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조직 개편, 예산 조정, 주민 불편 등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군민으로 인한 군민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권고 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하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2주 이상 단식 투쟁

윤석열 파면-국민의 힘 해체 촉구...군의회 결의안 전달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일부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 힘 해체를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투쟁이 14일째(지난 14일 기준)를 넘어섰다. 단식투쟁을 장시간 이어가고 있는 완주군의회 앞 농성장에는 매일 군민들이 찾아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주갑 의원의 결연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단식투쟁장을 찾은 한 군민은 어서 빨리 모든 사태가 마무리 돼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홀로 묵묵히 단식을 이어가는 이주갑 의원의 의지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끝까지 단식투쟁

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는 것으로 절대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께 보내는 서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 일궈내고, 피로 지켜낸 이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저의 온 몸을 바쳐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지난 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 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해당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수도요금 자동납부 할인 혜택 1%→5% 상향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제공되던 1% 할인 혜택이 5%(최대 5,000원 한도)로 상향되며, 문자고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요금이 3회 체납될 경우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매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도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며, 문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금을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자동납부와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매매로 인해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혜택 확대 시행으로 군민들은 실질적인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수도요금의 신속한 정수와 효율적인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소양면 장애인시설에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완주군이 소양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은혜의동산에 산림복지 나눔숲을 조성한다.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은혜의동산은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5,000만 원의 녹색자금(복권기금)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한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외부의 생활 및 이용 공간에 숲과 쉼터를 조성한다.

은혜의동산은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역사회 내의 보호가 필요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23명이 거주중이며, 입주 장애인 중 대부분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활동 및 여가활동에 제약이 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은혜의동산에 총 1,000㎡의 실의 나눔숲을 조성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산책 및 숲 체험 등으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무장애길과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1과목 최대 100만원

순창군은 올해도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청소년 포함)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수강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수강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공무원 준비반,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 창출팀(063-650-1313, 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성명 발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루어진 지 90일이 지났음에도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오판으로 잠시 자유를 얻었을 뿐, 123 내란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선고 결정을 촉구했다.

을 촉구했다.

특히, 최용수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의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과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사발을 단행했고, "내란 수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창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마련된 천막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는 농성을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상인들 '바가지요금 없는 춘향제' 결의대회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재완)은 지난 13일 남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요금 근절 및 동행 페스타 참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부당요금 근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안정 점검반을 운영하고 남원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 의원점 등 다양한 업종이 할인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 페스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번 결의대회는 부당요금 근절과 동행 페스타를 통해 성공적인 춘향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슈퍼마켓 조합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친절환 서비스 제공, 가격표시제 준수, 부당요금 근절 실천을 다짐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전재완 이사장은 "이번 춘향제 기간에 조합원들이 모두 동참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 할인 행사 등 동행페스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민생안정금 사용자 확대, 18억 사용 증가 효과

남원시가 시민들의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사용자 확대 이후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75,862명에게 228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제기됐으며, 이에 남원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관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확대했다. 사용자 확대 조치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사용 금액이 약 18억 원 증가했으며, 전체 지원금 사용률이 80%(약 183억 원)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세계 콩팥의 날' 맞아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만성 콩팥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만성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유병률은 7.6%에 달하며, 70세 이상에서는 21.6%까지 증가한다. 특히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이 필수적이며, 한 번 손상된 콩팥 기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만성 콩팥병 검사비를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진안군 내 의료기관 또는 보건진료소에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등록된 주민이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중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군민들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임실군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및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가에서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휴이나 이물질 제거하고,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나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한 후 균정, 음·면사무소 또는 민간수거업자에게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납원수거사업소에 반입 후 재활용되며, 반입된 영농폐기물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돼 등급별로 kg당 100원에서 14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납원수거사업소로 본인 또는 마을 단위로 수거해 직접 방문해 처리하면 되고, 1개당 80원에서 10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읍·면에서는 집중수거기간 59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점검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이 적정 수거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하고,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1인 50만원 한도 인터넷 강의 지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지역 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의 지원은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 주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폼 주소는 학교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무주군청 누리집(www.muju.go.kr)에 접속(알림마당-공식사항)해 확인할 수 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원 대상자로 선착순 138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해당 학생은 희망 교과목 선 수강(선결제) 후 수강률 80%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환경은 개선하고 부모님들의 경제 부담은 줄이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코레일관광개발,관광활성화맞손

해랑 열차 투어 신규프로그램 등 열차 관광 사업 및 시설 활용 상품 개발 추진

임실군이 전국을 무대로 열차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코레일관광개발(주)과 함께 철도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 13일 코레일관광개발 권백신 대표의 심 민 군수와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열차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임실군의 보유 자원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천만관광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실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코레일의 열차 관광 사업 및 시설을 활용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실군 주요 관광지 및 잠재 관광지를 연계한 해랑 열차 투어



지난 13일 코레일관광개발 권백신 대표의 심 민 군수와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열차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신규프로그램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특성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 및

철도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관광객이 많아지면 KTX 임실역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제1회 기관단체장 상조회서 '청렴 길잡이' 역할 수행...공정·투명한 조직 운영 다짐

장수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최훈식 군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청렴 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조차내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고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 ▲올바른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마인드 정착 지원 ▲청렴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기관단체장 상조회'에서 최 군수는 청렴 길잡이의 첫걸음으로 기관 단체장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한 다짐을 함께 했다.



장수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은 군민 신뢰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핵심 가치이다"며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보호 혼신...민관·주민 동참

6개 마을 주민 100여 명 참여해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정화 활동 등 정성 쏟아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반딧불이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예 반딧불이 전담팀을 두고 반딧불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 사육과 연구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과 다발생지역 5곳을 비롯해 150여 곳에 달하는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잡목을 제거하거나 습지를 조성하고 다습기 방식,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는 등 관리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민간 단체와 주민들도 동

참하고 있다.

서식지 주변 가로등 소등과 친환경농업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정화 및 보호 감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는 서식지 마을 주민들이 반딧불이 서식지 7개소에서 생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주읍 후도마을 정명임 이장은 "5년 전 용담댐 방류로 인해 훼손됐던 반딧불이 서식지가 무주군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천연기념물의 반딧불이와 우리 고장의 보물인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6월과 9월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딧불이축제에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주제관과 1박 2일 생태탐험 등을 통해 살아가는 반딧불이와 만날 수 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이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기간을 2주로 확대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용의길'·'한승헌로'에 명예도로명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용담면 '용의길'과 안천면 '한승헌로', 2곳에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기존 법정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에 추가로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반영해 추가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안군은 진안 출신 인물과 지역 역사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했다.

앞서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군에 따르면 용담댐의 담수된 형상이 용을 닮은 것을 모티브로 수몰의 아픔을 딛고 용의 기운을 받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아울러 승진과 출세, 합격 등 용이 주는 기운을 도로명과 연계해 소망 실현의 관문으로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명을 지정했으며,

안천면'한승헌로'는 2022년 5.18 국립묘지에 안장된'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한 길을 걸은 그의 여정이 삶의 자침으로 남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자 진무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해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알리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반려견과 함께 걷는 벚꽃길 선사

내달 5일~6일 벚꽃축제, 반려인-반려견 위한 행사 준비

올해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어 반려인들에게 큰 특별함을 안겨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내달 5일과 6일 개최되는 옥정호 벚꽃축제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임실에서 우리 함께 꽃길 걷게'라는 남다른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 40팀이 참여해 장애물 넘기와 점프 훈련, 반려견과 함께 트레킹, 옥정호 출렁다리 이용 시 주의 사항 및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 기다려 오래 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

공원에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반려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으로 반려견과 같이 갈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을 마친 후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캐리어 및 유모차를 이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설레는 봄날 열리는 벚꽃축제가 많이 오셔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물든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반려견과 기념면서 축제도 실컷 즐기시고 옥정호의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신규임용 직원 23명 대상 직무교육 시행

장수군은 직무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14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신규 임용된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MZ세대 소통교육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신규공직자를 위한 공문서 작성법 등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속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베타

나나 실무와 밀접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규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최훈식 군수도 참석해 신규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공직 선배로서 전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훈식 군수는 "신규 공직자들이 장수군 발전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무주군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본사업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6개 읍면 14개 경로당이 사전 조사 대상으로 무주군은 7일까지 해당 경로당을 돌며 시설별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 사항을 찾아낼 계획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김인진 팀장은 "경로당의 단열시공과 창호 교체 등을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라

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건축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 한해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노인시설에 있어서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힘을 기울인다. 무주군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 규모로 이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전직원참여위험성평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청사 및 시설물 203개소에 대해 전직원 53명이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영농기 이전 5월초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청사 3, 저수지 61, 양수장 4, 취입보 135개소에 대해 지난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방법 등을 전직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마치고, 이달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

고, 발굴된 개선 의견은 위험성 결정회의를 통해 즉시 조치사항은 1개월, 향후 조치는 3개월이내에 완료한다.

합동 점검반은 기계(설비) 및 전기적 요인,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작업특성 및 작업환경 요인 등 위험 요인별로 구분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 결정에 의해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직원간 공유를 위해 직원교육 및 지사 게시판에 게시하며 평가결과의 기록 및 보존은 5년이다.

이양희 지사장은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따라 상반기내 즉시 및 향후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사 및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청 소속 레슬링 국가대표 이한빛, 아시아시니어 선수권 출전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소속 이한빛(여자 자유형 62kg)선수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시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이한빛 선수는 지난 12월에 열린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이번 아시아시니어 대회에 출전해 국제 무대에서 2025년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한빛 선수는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 획득을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됐다.

대회를 앞둔 이한빛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쥬세명테크, 다이로움 나눔) 곳곳에 라면 300만 원 상당 기탁

익산시는 (쥬세명테크(대표 문성원)가 시청을 방문해 라면 120상자(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쥬세명테크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다이로움 나눔공간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쥬세명테크 관계자는 “라면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의 인기 식품인 라면 기부는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세명테크 임직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명테크는 팔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다. 매년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백미를 비롯한 식품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시 우수 공무원 백하나·황인모 씨 표창장

복지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대응팀 백하나 주무관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 황인모 재활용팀장

(사)한국재사용비용기술훈합회가 탄소중립 실현의 발판이 될 재 활용 문화 확산에 적극 행정을 펼친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광규 (사)한국재사용비용기술훈합회 회장은 지난 13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복지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대응팀에서 근무하는 백하나 주무관과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에서 일하는 황인모 재활용팀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으로



(사)한국재사용비용기술훈합회가 탄소중립 실현의 발판이 될 재 활용 문화 확산에 적극 행정을 펼친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하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규 회장은 “전국 지자체 주무관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백하나 주무관처럼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주무관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선정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황인모 팀장 또한 재활용 업무에 해박함과 적극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 이 두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익산서동로타리클럽, 청소년 학습용 노트북 2대 기탁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남아 학습이 힘든 청소년들 교육 기회 확대하고 꿈 응원하기 위한 취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서동로타리클럽(회장 백승희)은 지난 14일 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노트북 2대를 전달했다.

익산서동로타리클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2대를 지원하고 있다.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남아 학습이 힘든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다.

백승희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익산서동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 지원해 주신 노트북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서동로타리클럽(회장 백승희)은 지난 14일 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노트북 2대를 전달했다



고창군 해리면순창군 구림면, 130만 원 상호기부

고창군 해리면(면장 홍정목)과 순창군 구림면(면장 이석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부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기부는 고창군 해리면(13명)과 순창군 구림면(13명) 총 26명이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130만원을 상호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서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협력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시 범농협, 합동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실시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14일 군산원에농협 본점에서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군산시지부, 군산원에농협, 군산중앙로지점, 나운센터지점, 수송동지점, 군산시청 출장소 지점 등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지역농협 임직원 30여명이 ESG 경영 실천 및 국가적인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원천연 지부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금차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지역 헌혈동참 문화 정착을 이끌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재경 남원성원고 동문회장 김종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 전달

김종표(재경 남원성원고 동문회장, 산동 출신) 향우가 지난 13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해 왔다.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0만원 기탁에 이어 2년 연속 변함없는 고향사랑 실천을 보여주었기에 이번 기탁은 그 의미가 더 크다.

김종표 회장은 “고향은 나에게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원천이다”라며, “작은 힘이나 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남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애뜻한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향우분들의 애정과 지원 덕분에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량면, 복지기동대 첫 정기회의 ·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2층 회의실에서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철)가 정기회의 및 안전교육을 진행한 후, 복지기동대원 13명과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10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규 복지기동대원 위촉, 안전교육 실시,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봉사활동 시기를 논의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전손잡이 설치와 같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작업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자주 넘어져 다칠까 봐 불안했는데,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주셔서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인덕 부량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왕정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hy 한국야쿠르트와 협약 체결

왕정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지난 12일, (주)hy(한국야쿠르트) 남원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인 취약가구를 위한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hy(한국야쿠르트) 남원점은 지역 내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호남의 금강산
완주 대둔산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인문의세 지평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유)양지대둔산식도 TEL : 063) 263-6621~3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3-30

〈一事一言〉



악은 어떻게 내면화하는가?(2)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어쩌면 아이히만 등이 보인 이 '야누스의 얼굴'은 '평범인'의 전형이 아닌, '확신범'의 전형일지 모른다. 평범인이라면 인지 부조화 내지 언행 불일치 상황에서 수치심, 죄책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침묵 속으로 숨거나 외면하려 한다. (영터러이긴 하지만)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애를 쓴다. 그러나 '확신범'은 다르다. 양심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과 태도, 행동을 오히려 합리화, 정당화, 적극 옹호한다.

최근 한국 상황에서 나온,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계몽령' 발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평범한 척, 착한 척, 선행을 베푸는 척한다. 아이히만 역시 가족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음악 악을 즐기고 독서도 열심히 했다. 예루살렘의 재판정에서도 그는 '저항 없는' 성실한 관료로 위장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최후의 순간까지 나치즘을 신봉한 확신범이자 반성 없는 자기변호인(거짓말장미)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는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까지 동원하며 자기 정당화에 진력했다. "나는 항상 칸트 철학의 애호가였으며,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칸트의 정언명령은 오히려 양심의 명령에 가깝지 파쇼의 명령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슈팅네트는 말한다. 아이히만에게 재판은 '자신과 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가면극이 자 냉소적인 기만극'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가면극 내지 기만극에 관찰자 아렌트 역시 속았다!

따라서 슈팅네트의 '악의 확산성' 개념 역시 타당하게 보인다. 알고 보니, 윤석열과 김용현, 김건희와 노상원, 일부 국힘당 의원이나 극렬 종교인 등, 계엄 주도 세력들은 이 명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같다. 한편, 상당수 장군들과 국무위원들,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과 국힘 추종자들은 '악의 평범성' 명제를 입증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체로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VIP의 의지' 때문에, '눈 밖에 나가 두려워',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나서' 등의 이유로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끌려 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묻는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도, 슈팅네트의 '악의 확산성'도, 나름 일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평범한 사람조차 악을 확산하게 되는가'라는 것이다. 요컨대, '악의 내면화'가 문제다. 이에 대한 내 나름의 사유 결과는 이렇다.

첫째, 가장 쉬운 설명은 '세뇌 효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릴 때부터 사람의 두뇌와 생각을 국가 내지 특정 세력(교육, 언론, 종교)이 조작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칭송하는 독일의 킨더가르텐(유치원) 제도는 '원래' 나치 시절에 국가가 (그리고 자분이) 아이들을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거칠게 압축하면, '아이들을 부모의 오염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고 순수한 아리아족의 위대함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만3세 아동부터의 킨더가르텐 제도다. 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의 혼을 개조하기 위해 '국민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만든 교과서로 국민교육을 해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세뇌 교육의 수단은 '당근과 채찍'이다. 말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아니면 채찍으로 때린다. 국가나 어른이 원하는 일을 반복하며 당근으로 보상을 거듭 받게 되면 그런 생각, 느낌, 태도, 행동은 습관이 된다. 세뇌의 결과 낯선 규범이 습관으로, 나아가 그것이 상식으로 신념화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일정 시점에서 '근본적 성찰'의 계기를 갖지 못하면 세뇌된 상태로, 그것이 옳다는 확신으로 살아간다. 악의 '내면화'는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아이히만은 1957년 9월, 한 '원탁 모임'에서 "우리가 1030만 명 유대인 중 (600만이 아닌) 1030만을 죽였다면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이고 (...) 우리 피와 민족에 대한, 또 민족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이라 했다. 이런 신념을 그는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근본 성찰'의 기회가 없다면 '악의 내면화'는 일사천리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그런 근본 성찰은 '유럽의 68 혁명'을 계기로, 한국의 경우엔 '대학 신입생 시각 교정'을 계기로 상당 정도 이뤄졌다. 물론, 지금의 일상에서도 교양도서나 꾸준한 인문학 모임을 통해 그런 '근본 성찰'은 얼마든 가능하다.

반면, 이 근본 성찰의 기회가 없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른 아이'가 된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의 의미조차 모르기 일쑤다. 그저 생존했고, 재산을 모았으며, 국가에 충성했고, 내 새끼 남기고 갈 뿐! 요컨대, '세뇌-습관-상식화'의 경로가 '악의 내면화'를 낳는다. 둘째, 이해관계 내지 이해득실 계산법에 따른 '악의 내면화'다. 세뇌되어 성장한 사람조차 일정 계기에 직면해 '국가에 속았다', '언론에 속았다' 또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현타=현실 자각 타임), 결국 '돈이 최고'라 느끼게 된다. 크게 보면 이것은 '등가법칙의 효과'다. 즉, 인간적 유대감에 기초한 공동체가 해체될수록,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이 상품-화폐 교환(등가법칙)에 지배될수록, 이런 살리주의가 팽배하게 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게재될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헌법 부정하는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날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정치세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내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이 석방돼 감옥을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는 더욱 거세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추방안을 제안하며 국회를 해산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폭거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마른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는 등,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입법부의 권위를 이용해 사법부를 흔들고 헌법 수호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위험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보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이야말로 내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단순한 정

치적 위기의 산물이 아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우롱하고 사법권을 압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데서 비롯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우리는 이런 망가진 정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가적 중대사에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일이다.

계기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겁박하고 법을 무시하며 권력을 지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묘에서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면 권력의 사유화와 혼란의 늪으로 빠질지는 국민과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개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할 때다.

조필달 장군 유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지정일 - 1983년 8월 24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김제시 북죽동 142번지 동진수리민속박물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중양지국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안주지국 010-2433-1721 |
| 완주지국 010-3672-0308 | 인원지국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 진안지국 010-4572-6112 | 정수지국 010-8626-6049 | 정읍지국 010-2800-2934 |
| 순창지국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너의 하늘을 보아 / 박노해

| | | |
|---|--|---|
|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
|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
|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성경 해 주경야독으로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 | 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

JBT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낭만적인 사랑의 서사 백제 '서동설화', 전주에서 펼쳐다



‘서동설화’ 무용극 기반 오페라 연희 댄스컬
‘웨스트 & 이스트(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
4월 12일 1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연

익산시가 시립예술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을 전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익산시립예술단은 내달 12일 오후 3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웨스트 & 이스트(West & East) - 서쪽남자 & 동쪽여자’ 공연을 선보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웨스트 & 이스트’는 익산을 대표하는 설화인 ‘서동설화’에 신화적 판타지를 더한 무용극 기반의 오페라 연희 댄스컬이다. 익산시립예술단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단 전원이 참여한다. 2023년 첫 공연 이후 매년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익산시는 백제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룩한 전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8세 이상 관람가

‘서동설화’ 무용극 기반 오페라 연희 댄스컬 ‘웨스트 & 이스트(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 공연을 전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익산시립예술단은 내달 12일 오후 3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웨스트 & 이스트(West & East) - 서쪽남자 & 동쪽여자’ 공연을 선보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웨스트 & 이스트’는 익산을 대표하는 설화인 ‘서동설화’에 신화적 판타지를 더한 무용극 기반의 오페라 연희 댄스컬이다. 익산시립예술단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단 전원이 참여한다. 2023년 첫 공연 이후 매년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익산시는 백제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룩한 전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8세 이상 관람가

‘익산’을 알리는 브랜드 공연이 전주에서 소개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익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2025.4.12.(토) PM3: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베리웰**

선운산농업협동조합

- 상임이사: 안성민 사외이사: 진기영
- 비상임이사: 류채상 김용자 김완식 나삼주 서금자 최형곤 김범진 박수정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이종호 김대환

■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정면 무정읍성길 34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웰 파 키 지 점: 563-7255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사무실: 063)562-9604 - 사무실: 562-5007 - 사무실: 562-7888 - 팩스: 563-7256 - 팩스: 562-9654
- 팩스: 063)562-9601 - 사무실(아간): 562-5126 - 사무실: 562-7890 ■ 선운사지점: 561-3443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아나로마트: 063)562-9602 - 팩스: 561-0955 - 팩스: 564-6465 - 팩스: 561-4257 - 팩스: 562-9609
- 영농자재판매장: 063)562-9603 - 아나로마트: 562-5166 - 아나로마트: 562-7889 ■ 복분자기공사업소: 564-5008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564-9605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팩스: 564-5078